



주간통일정세 2008-02(2008.01.01~01.0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0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관련

● 중앙-지방 기관들 “공동시설 철거 관철” 다짐 행사 전개(1/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공동시설이 발표된 직후인 1일 오후부터 2일까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을 중앙·지방기관들이 신년공동시설을 일제히 해당 분야의 “강령적 지침”으로 받아들여 이에 대한 “철저한 관철” 의지를 밝혔다는 사실들을 보도하기 시작
- 내각과 군부, 지방당 등의 고위 간부들도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강조한 신년 공동시설의 실천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보도

나. 경제 관련

● 경공업 공장의 현대화 강조(2007년 4호, 경제연구)

- “지금 있는 경공업 공장들의 낡고 뒤떨어진 설비와 생산공정을 선진 기술로 개조하는 사업을 힘 있게 벌여 기술장비 수준을 높이고 생산의 종합적 기계화와 현대화, 컴퓨터(컴퓨터)화, 로봇(로봇)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 경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려면 경공업 공장의 현대화를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

다. 사회 관련

● 새해 첫날 ‘명절 분위기’ 제고(1/1, 조선중앙통신)

- 음력설과 함께 공휴일로 정해져있는 1월 1일, 평양 시내 곳곳에서는 ‘새해를 축하 합니다’, ‘새해 2008’ 등을 적은 선전화(포스터)와 그림판이 세워졌으며 북한 인공기와 붉은색 깃발도 나부껴 명절 분위기가 북돋우어 진 것으로 보도
- 반면, 당·정·군 간부들은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 고(故) 김일성의 시신에 “경의를 표시” 했으며 인민군 장병과 각계 근로자, 청소년들도 현화로 새해 첫 일과를 시작

2. 대외정세

가. 북핵 관련

● “核신고 이미 했다”고 주장(1/4, 외무성 대변인 담화)

-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발표(1/4), “우리는 이미 지난해 11월



에 핵 신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언급함으로써 핵신고 의무 이행 완료를 주장

- 외무성 대변인은 신고의 핵심인 우리농축프로그램(UEP) 문제에 대해 “우리는 그들의 요청대로 수입 알루미늄관이 이용된 일부 군사 시설까지 특례적으로 참관시키고 우리농 농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성의 있게 다 해명해 주었다”고 주장

● 6자회담 합의 이행 재확인(1/2, 조선신보)

- 조선신보의 신년 공동사설 해설 기사에서 “조선에 있어서 2008년은 작년 이룩된 진전에 토대하여 오랜 세월 나라와 인민에 고통과 수난을 강요하던 쇠사슬을 마스고(부수고) 강성부흥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는 기점의 해”라고 하면서 “6자회담 이행에 관한 조선의 행동에 의문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

나. 북·미 관계

● 대미 비난 강화(1/6,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미국이 강권으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고 지배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으로 “미국의 강권정책은 건전한 국제관계 수립과 세계 평화, 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며 “미국의 강권과 힘의 정책 강행으로 국제적으로 새로운 군비경쟁과 냉전의 위험이 증대되고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엄중히 위협, 침해당했다”고 강조

● 북·미 평화협정 체결 강조(1/6, 평양방송)

-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려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해야”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며 남조선(남한)에서 침략적인 무력증강 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하고 나섰음.

● 미당국의 대북라디오 방송 지원에 대한 비난 강화(1/2, 노동신문)

- “부르주아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퍼뜨려 내부를 와해 변질시키려는 미국의 비열한 심리모략 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 지원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미국의 모략적인 대조선(대북) 방송 작전은 오늘 극도의 비열성과 악랄성을 띠고 감행되고 있다”며 미 당국의 대북방송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우리 나라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악랄한 책동의 일환”이라고 주장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미·북 관계

● 백악관, 핵프로그램 신고에 회의적(1/2)

- 백악관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은 북한이 작년 연말까지 실시키로 한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 기한을 넘기자 “북한이 지난달 말까지의 신고 시한 설정에 합의한 당사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회의적”이라고 밝히고 “지난 몇 년 간 북한을 대한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가 회의적인 건 아주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 미, “북 전면 핵신고 아직 못 받아”(1/4)

-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이미 핵신고를 했다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주장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받지 못했다”며 “6자회담에서 합의된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이 빨리 신고를 제공할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도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워싱턴 인근 델레스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미국에 일부 내용을 설명한 바 있지만 공식 핵신고는 6자회담의 장국인 중국에게 해야 한다”면서 이를 최종 신고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1/4).
- 힐 차관보는 북한이 “모든 (핵)물질과 설비, 시설, 프로그램을 포함한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간 협의에서는 그럴 준비가 돼 있다는 감을 받지 못했다”면서 북한에 ‘충분하고 정확한’ 핵신고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 힐차관보, 일·한·중·러 연쇄 방문(1/7~12)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일본(7~8), 한국(8~10), 중국(10~11), 러시아(11~12)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을 잇따라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1/3).
- 힐 차관보의 이번 4개국 방문은 북한이 지난 연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키로 한 ‘10·3 공동선언’ 이행시한을 넘긴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향후 대책에 대해 집중논의하게 될 것으로 관측됨.



나. 중·북 관계

● 중, “북·일 관계정상화 양국 국익 부합”(12/27)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가 중국과 일본 양국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중·일 양국 지도자는 6자회담이나 북한 비핵화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 베이징올림픽 앞두고 탈북자 전면 단속

-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2008.8)을 앞두고 자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베이징의 서방 소식통들이 밝혔다(12/30).
- 중국은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가 한국 대사관이나 다른 외국공관 등에 진입, 망명을 요구할 경우 자국의 탈북자 정책, 대북정책, 인권 문제 등이 국제여론의 비판대에 올라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중국 공안 당국은 이러한 우려할만한 사태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2008년 초부터 특히 베이징 시내에서 탈북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이들의 외국공관 진입을 확실히 차단키로 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 중국은 또한 북한과의 국경에 대한 경비를 강화,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 공안 당국은 현재 주중 한국대사관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베이징 사무실 등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 40여 명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과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출국허가서를 발부해줄 방침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 중 외교부, “북핵 신고지연 큰 문제 안돼”(1/3)

-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문제에 대해 일부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 제2단계 합의 이행이 현재 진행중”이라며 “어떤 부분은 빨리 또 어떤 부분은 늦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 중국의 이같은 입장은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문제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반응(1/2)을 보인 것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주목됨.



2. 주변국 관련

가. 미국 관계

● <2008 신년사> 부시, “희망과 기회의 미래 시작”

- 연말연시 휴가차 텍사스주 크로퍼드 목장에 머물고 있는 부시 미국 대통령은 신년사(12/31)를 통해 “미국은 전 세계에 자유와 평화를 확산시키는 임무를 계속해 왔다”면서 “미국은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들을 물리치겠다는 각오가 단호하며 자유의 적들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시 대통령은 또 “2008년에 우리는 우리 자손들을 위한 평화의 토대를 쌓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계속 같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고용증가, 재정적자 감소 등을 언급, “군진한 경제 속에서 희망과 기회의 미래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제토대는 튼튼하고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당면한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탄력적”이라고 말했다.

나. 중국 관계

● 후진타오, 개혁개방 노선 변화시사(1/1)

-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청사에서 열린 시년 다과회에서 올해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아 개혁·개방의 과정을 돌아보고 이를 총결산, 그동안의 성취와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조건 아래 개혁·개방 노선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 그러나 개혁·개방 노선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다. 일본 관계

● 일 총리, 유튜브브서 영어로 신년인사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전 세계 네티즌을 상대로 신년인사를 건네는 내용의 동영상에 미국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브닷컴에 게재(1/1)돼 눈길을 끌고 있음.
- 후쿠다 총리는 메시지를 통해 “환경문제 등 다가올 미래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일본이 앞장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하는데 일본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자민당의 이 같은 국가홍보 노력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얻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음.



라. 러시아 관계

● 푸틴, “러시아는 강해질 것”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신년사(12/31)를 통해 집권 기간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러시아의 단합을 역설했음.
- 그는 “우리는 매년 러시아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고 있고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활짝 열려 있음을 본다”며 “러시아는 앞으로도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음.

☀ 동북아연구실 제공